

# 서로 다른 어휘의 동질성을 위한 방안

최호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머리말

우리 민족은 세계 여러 곳에 퍼져 살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은 한반도이다. 그런데 그 한반도는 둘로 갈라져 우리는 50여 년 동안 단절된 채 살게 되었다. 둘로 갈라진 남북은 그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달라지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사회 제도와 생활 방식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 주민이 사용하는 우리의 말도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 언어의 차이가 지역 간의 방언에서 느끼는 차이 정도라는 것에 있다. 남북 주민은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 언어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남북 언어의 차이가 독립된 조직(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 조직의 언어 규범은 그 조직의 모든 분야에서 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다른 두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될 때에 거기에는 통일된 하나의 규범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남북 언어의 차이는 규범적 차원에서 일컫는 것이며, 서로 다른 어휘의 동질성을 위한 방안 역시 규범적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로 다른 어휘의 동질성을 위한 방안을 규범적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다.<sup>1)</sup>

## 2. 남북의 우리 말

우리의 말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같은 말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지역 방언과 체제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 방언은 동북(함경도·양강도) 방언, 서북(평안도·자강도) 방언, 중부(황해도·경기도·강원도·충청도) 방언, 호남 방언, 영남 방언, 제주 방언이고, 체제 방언은 표준어(남의 규범어), 문화어(북의 규범어)이다. 지역 방언이나 체제 방언의 형성은 대체로 지역이나 체제 사이의 언어 교섭이 잦지 못함으로써 각기 다른 발전의 방향을 갖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러한 방언들을 우리 말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역 방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언 안에서는 서로의 의사 소통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방언 사이에는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워 인위적으로 정한 말이 공통어인 규범어이다. 이 규범어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정치적 중심지에서 사용되는 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에서는 서울말을 바탕으로 한 규범어를 '표준어'라 하고, 북에서는 평양말을 바탕으로 한 규범어를 '문화어'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남의 '표준어'와 북의 '문화어'는 우리 말의 또다른 체제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의 '표준어'는 우리나라의 남부 방언이 되고 북의 '문화어'는 우리나라의 북부 방언이 될 뿐이다. 이 두 체제 방언도 실은 지역 방언의 형성과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언어 교섭이 잦지 못함으로써 각기 다른 발전의 방향을 갖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각 체제 방언 안에서는 서로의 의사 소통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두 방언 사이에는 의사 소

1) 이 글은 홍종선·최호철(1998)과 최호철(2000)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두 체제 방언의 공통어인 통일 규범어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대외적인 우리 말 교육과 보급에서도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sup>2)</sup>

### 3. 남북 어휘의 차이

남북 언어의 차이에 대한 남한의 관심은 1970년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에 발표된 논저만도 450여 편이 훨씬 넘는데 거의가 1988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최호철 1996, 1998). 이는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특수 기관의 연구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김민수(1985)를 기점으로 보편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1990년도까지의 연구가 남북 어휘의 이질화 현상과 그 극복 방안을 강구한 응용적인 기술이었다면, 김민수 편(1991)은 이론적인 면에서 북한의 국어학 연구 성과를 통시적으로 정리한 이론적인 기술이었다.<sup>3)</sup> 한편 우리나라 어문 정책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도 남북 언어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있다(<http://www.korean.go.kr>).<sup>4)</sup>

- 
- 2) 이러한 규범 어휘의 통일은 대외적인 우리말 교육과 보급에서 단일한 모습으로 시행할 수 있어 재외 동포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에게도 우리말의 참모습을 쉽고 간편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먼 훗날 우리말의 존재 가치를 확고히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 3) 1985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폐쇄적 연구의 시기라 한다면 그 이후는 개방적 연구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1991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일반적 연구의 시기라 한다면 그 이후는 전문적 연구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4) 북한의 언어 정책(1992. 7.),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I)(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1992. 12.),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II)(남북한 장·단음 비교)(1994. 3.), 북한의 한자어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1994. 5.),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III)(다듬은 말)(1994. 12.), 남북한 친척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1995. 12.),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IV)(속담과 관용구)(1995. 12.),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연구(1995. 12.),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V)(1996. 12.), 북한 문학 작품의 어휘(1998. 12.), 남북한 한자 어떻게 다른가(1999. 5.)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에서 남북 어휘의 차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언어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반 사람들은 실질적인 언어 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실질적인 남북 교류가 잦아지게 되자 언론 보도를 통하여 남북 어휘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고, 아울러 남북 어휘의 차이를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할 언어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 (1) 언론 보도에 나타난 남북 언어 차이(<http://www.koreanlinguistics.or.kr>게시판)

가. <문화일보(2001/02/10 14:26), 정충신 기자, 남북군사회담 ‘용어 차이’>

반세기의 분단이 남긴 언어의 이질감은 남북 군부 간 최초의 협력 사업인 ‘비무장지대(DMZ) 공동규칙’ 합의서 문안 조정 과정에서도 수행요원들을 진땀나게 했다. 지난 8일 제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열린 판문점 북측 통일각. 국방부 군비 통제실 소속 우리 대표단 수행요원 4명은 컴퓨터를 들고 통일각과 우리측 평화의 집을 바삐 오가며 합의서 작성을 위한 용어 풀이에 신경을 집중, 언어 단절의 후유증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했다. 북측이 내놓은 합의문 초안에는 ‘지뢰 해제’라는 용어가 뜬금없이 등장한다. ‘제거’는 우리말로 ‘해제’를 뜻한다. 우리말 ‘장비’는 북한말로 ‘기재’, ‘현황’은 ‘정형’이다. 예컨대 ‘지뢰 제거용 장비 현황’을 북한말로 바꾸면 ‘지뢰 해제용 기재 정형’이다. ‘정상회담’은 북한말로 ‘수뇌회담’이며, 외래어인 ‘팩스’는 북한말로 ‘팍스’다. 북측 대표단은 ‘기본상, 근원상’이라는 용어를 자주 써 우리 대표단을 곤혹스럽게 했다.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라는 용어를 쓰는 우리 대표단에게 북측 역시 귀를 쫑긋 세워야 했다. ‘쌍방은 경계초소를 250m 이격한다’는 문구는 북한 수행요원들에 의해 ‘쌍방은 경계초소는 250m 이격한다’로 바뀌었다. 우리의 보조사 ‘는’이 북한

어법에서는 목적적 조사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양측 수행요원들 간에 맞춤법에 대해 열띤 토의를 하느라 오전 10시에 시작한 회담이 오후 5시가 지나야 끝났다. 문구 하나하나에 세심한 신경이 쓰이는 군사회담 합의문 작성 과정에 용어 풀이는 그야말로 입학시험을 치르는 듯한 고역이었다는 게 수행요원들의 뒷얘기다. 양측은 회담 합의문 작성 때 명사의 경우 ‘지뢰 제거(해제)’와 같이 괄호를 달고, 접미사·조사 등은 각자의 어법대로 쓰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회담에 참가한 한 수행요원은 “군사 부문의 신뢰 회복은 잦은 접촉을 통해 언어의 이질감부터 해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세계일보(11/12 17:11), 유순열 기자, 남북경협 실무접촉서 언어장벽 ‘해프닝’>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는 남북한의 언어장벽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진 가운데 한 사람은 합의서 가운데 ‘○○○○을 감안해서’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북측이 이 말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한동안 어안이 병병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북한에서 ‘감안’이라는 표현은 ‘차감한다’는 뜻으로 사용돼 자신들이 불리한 내용으로 해석했다는 것. 결국 양측은 한차례 웃음 끝에 오해를 풀고 ‘감안’을 ‘고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서 문구 수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 남측 대표는 “영어로는 협상을 많이 해 봤지만 같은 한국말로 협의하고 한국어로 합의서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어 장벽 때문에 투자보장합의서엔 양측 용어를 비교하는 ‘용어 해설 부록’까지 붙였다. 남한의 ‘법인’은 북의 ‘실체’, ‘자연인’은 ‘개별적인 사람’, ‘서명’은 ‘수표’, ‘천연자원’은 ‘자연부원’식으로 같은 뜻의 용어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다. <한국일보(2000/08/14 18:45), 김동선 기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생소한 北南 언어'>

“동무, 바쁘지 않았습니까?” “적은이는 무사합니까?” 50년만에 만난 가족에 대한 감회는 일단 눈물과 포옹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어 터져나오는 말은 서로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지 모른다. 부인을 ‘여보’ 대신 ‘동무’나 ‘동지’로, ‘안녕하십니까’는 ‘바쁘지 않느냐, 무사한가’로 쓰는 등 북한에서 쓰이는 가족 호칭이나 인사말이 남한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중략) 시부모에 대해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장인, 장모’라는 호칭은 없다. ‘장인, 장모’는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가 된다. ‘가시’는 ‘아내’의 옛말이다. 이러한 생소한 말은 북한이 한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위’를 남한에서처럼 ‘김서방’ ‘이서방’ 등으로 부르면 상대방이 찡찡 뛰게 된다. ‘서방’은 ‘머슴’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두벌새끼가 더 귀엽다’는 말은 손주를 예뻐하는 말이다. ‘계부, 계모’는 ‘후아버지, 후어머니’로 부른다. (후략)

남북 어휘의 차이는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등에서 모두 발견된다. 한자어 부문에서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그 명명이나 용법이 달라진 것이고, 외래어 부문에서는 단어를 받아들인 나라가 다름으로써 야기된 것이며, 고유어 부문에서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새 말로 바꾸거나 방언이나 고어를 되살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고유어로 다듬은 한자어나 외래어, 되살린 방언이나 고어가 대응하는 고유어와 더불어 규범어(문화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남북 어휘 차이의 정도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 (2) 언어 순화 과정에서 달라진 어휘<sup>5)</sup>

### 가. 새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달라진 경우(남/북)

각색/[각색, 옮겨지움], [감도, 느낌새]/감도, 군도/[군도, 무리섬], 기성복/[기성복, 지은옷], [나이트게임, 밤경기, 야간경기]/나이트게임, [나이프, 칼]/[나이프, 밥상칼], 넷트오버/[넷트오버, 그물넘기], 노안/[로안, 늙은눈], 댐퍼/[담파, 조절판, 조절문], 러닝(셔츠)/[런닝셔츠, 땀받이], [로터리, 네거리]/로타리

### 나. 방언이나 고어를 되살려 쓰는 과정에서 달라진 경우(남/북)

[가, 가장자리]/[가, 가장자리, 가생이], 가량스럽다/[가량스럽다, 가량맞다], 강필/[강필, 강벌], 개비/[개비, 개피], 개울/[개울, 개골], 거의/[거의, 거진], 걸우다/[걸우다, 걸구다], 걸핏하면/[걸핏하면, 건똥하면], 겨냥/[겨냥, 겨눔], 곱사등이/[곱사등이, 곱새], 구유/[구유, 궁이], 그제야/[그제야, 그제서야], 깃웃/[깃웃, 깃짓]

## 4. 서로 다른 남북 어휘의 동질성을 위한 방안 : 복수 규범 어휘 설정

남북의 규범 어휘를 하나로 통일하려면 한 개념이나 대상에 대한 둘 이상의 단어 가운데 공용어로 쓰일 수 있는 한 단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에서 각각 오랜 시간 동안 써 오던 것을 단번에 어느 하나로 확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면 결국 둘 이상의 단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처리는 남북에서 이미 시행하던 것이므로 이렇게 처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북한은 한 개념이나 대상

5) [ ] 안에 있는 단어는 모두 규범 어휘임. 이하 같음.

에 대해 둘 이상의 문화어를 인정하고 있어 남한의 복수 표준어 개념과 상통하는 데가 있다.

### (3) 남북의 복수 규범 어휘

#### 가. 남한의 복수 표준어

[가는허리, 잔허리], [가락엿, 가래엿], [가뭇, 가물], [가엿다, 가엿다], [감감무소식, 감감소식], [개수통, 설거지통], [갱엿, 검은엿], [거위배, 횃배], [게을러빠지다, 게을러터지다], [고깃간, 푸줏간], [꼬까, 때때, 고까], [꼬리별, 살별], [꽃도미, 붉돔]

#### 나. 북한의 복수 문화어

[각색, 옮겨지음], [군도, 무리섬], [기성복, 지은옷], [나이프, 밥상갈], [네트오버, 그물넘기], [로안, 늙은눈], [담과, 조절판, 조절문], [런닝사쯔, 땀받이], [밭코니, 로대(露臺), 바갈대], [방사형, 해살형], [스프링코트, 봄(가을)외투], [완구, 놀이감]

그러면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복수 규범 어휘 개념을 수용하여 폭넓게 적용한다면 남한이나 북한이나를 막론하고 어느 한쪽에서라도 규범 어휘로 인정한 것이라면 모두 받아들여 통일 규범 어휘로 인정하면 될 것이다. 이는 남북의 언어 정책의 성과를 서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남북 화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언어 체계에 익숙해져 있는 주민들에게 어느 한쪽을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복수 규범 어휘는 통일 후에 남북 전체 주민의 어휘 사용 실태를 살펴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4) 통일 규범 어휘

[가, 가장자리, 가생이], [가랑스럽다, 가랑맞다], [각색, 옮겨지음], [감도, 느낌새], [강필, 강벌], [개비, 개피], [개울, 개골], [거의, 거진], [걸우다, 걸구다], [걸핏하면, 건똥하면], [겨냥, 겨눔], [곱사등이, 폼새], [구유, 궁이], [군도, 무리섬], [그제야, 그제서야], [근사치, 근사값], [기성복, 지은옷], [깃옷, 깃것], [까슬까슬, 까실까실], [깨묵, 깨꾸지], [꺼림하다, 꺼끔하다], [꼬락서니, 꼬라지], [끼니때, 끼때], [나이트게임, 밤경기, 야간경기], [나이프, 칼, 밥상칼], [네트오버, 그물넘기], [로안, 늪은눈]

위와 같은 방안이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상 생활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존재 의미는 유명무실할 것이다. 더구나 언어 생활에서 이질적이었던 남북의 주민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사회에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언어 생활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규범 어휘를 복수로 시행하는 것에는 강제적인 부분과 선택적인 부분을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 기관의 문서에는 강제성을 부여하여 반드시 복수 규범 어휘를 시행케 하고, 사설 기관의 문서에는 복수 규범 어휘를 권장하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복수 규범 어휘를 의무화할 때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해야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의 경우는 2개 국어를 인정하는 나라와는 달리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문장 전체를 병기하는 것보다는 어절별로 병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 별도의 가르는 부호가 필요한데, 그것은 빗금(/)을 사용케 하고, 현재의 빗금 용법은 가운데점(·)으로 통합하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빗금(/)은 어디에서나 남북의 복수 규범 어휘에 사용하게 할 것이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러한 병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sup>6)</sup>

6) 예를 들어 남북 어느 한쪽의 규범 어휘를 중심으로 하되 별도의 난을 두어 다른 쪽의 규범 어휘를 참고하게 하는 방법이다.

### (5) 복수 규범 어휘 시행 방침

국가 기관의 문서는 반드시, 사설 기관의 문서는 임의로 복수 규범어를 쓴다(빗금으로 구분).

### (6) 복수 규범 어휘 사용의 보기

가. 남한 중심: 걸핏하면/건똥하면 돈 달라는 소리다.

북한 중심: 건똥하면/걸핏하면 돈 달라는 소리다.

나. 남한 중심: 주스/과일단물 좀 마시겠니?

북한 중심: 과일단물/주스 좀 마시겠니?

이처럼 복수 규범 어휘를 강요할 경우에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북 규범 어휘 대비 사전의 발행 배포이다.<sup>7)</sup> 서로 규범 어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쉽게 상대의 규범 어휘를 찾아 쓸 수 있는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잘 구성해야 할 것이다. 남북 어휘 대비 사전의 발행은 우리 민족 모두가 남북의 어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권의 사전 발행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sup>8)</sup>

---

7) 21세기 세종 계획의 일환으로 남북 언어 비교 사전의 1단계(1998~2000년)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이는 고빈도 어휘(10,000단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북 어휘의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차이가 두드러진 단어의 대비 작업은 2001년도에 이루어질 것이다.

8) 국내의 모든 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남북 어휘 대비 마당을 두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매체의 활용은 한반도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 전체, 나아가서는 외국인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7) 남북 규범 어휘 대비 사전 발행 배포

### 5. 맺음말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남북이 통일되기 이전부터 양쪽의 국어학자가 만나 국어의 통일화를 위해 협의하고, 합의된 결과를 양쪽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남북 국어학자의 논의에서는 양쪽의 자존심이나 우월감의 경쟁이 아니라 국어의 올바른 미래를 지향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 이 모든 논의는 통일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합의되지 못하는 사항은 지나치게 한쪽의 포기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복수의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식을 찾는 게 좋을 것이다.

아직 남북 통일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 이후의 언어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이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통일을 바라보는 오늘, 통일 후의 언어 생활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이른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한 언어의 통일 작업은 정치적인 통일을 이룬 뒤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 언중들 사이에 서로 언어적 이질감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그때는 한국어 화자들이 잘 화합하여, 국어의 통일이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확고히 잡았음을 의미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민수(1985). 『북한의 국어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민수 편(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1945~1990)』(전4권). 서울: 녹진.  
 최호철(1996). 『북한 어학에 대한 남한의 연구』. 『한국어학』 3.

최호철(1999). 『북한 언어 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도서출판 한울.

최호철(2000ㄱ). 「21세기의 우리말」. 제6차 KOREA학 국제 학술 토론회 토론 요지. 하와이 알라모아나 호텔.

최호철(2000ㄴ). 『21세기의 국어 정책: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 분야』. 국립국어연구원 학술회의 발표 요지.

홍종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http://www.korean.go.kr>(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linguistics.or.kr>(한국어학회 홈페이지).